

남성 난임 30~40%...생활습관 변화로 개선 가능



건강 바로 알기 남성 난임

최민엽

시엘병원 원장

최근 WHO에서는 정액검사의 기준치를 이전보다 다소 높게 설정하였는데, 이는 남성요인으로 인한 난임을 조기에 발견하고 난임 치료에 힘쓰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전까지는 1ml 당 1500만개의 정자수를 보인다면 정상으로 여겼지만, 2020년 새로운 기준으로는 1600만 이상의 정자수를 가져야 정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정자 운동성의 기준도 40%에서 42%로 상향 조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난임으로 진료받은 남성의 경우 2015년에는 5만여 명에서 2019년에는 8만명 이상으로 급증했으며, 전체 난임중 남성요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30~40%라고 알려져 있다.

정액검사 결과에서 희소정자증, 운동성 저하증, 기형정자증 등의 소견이 보인다면 적극적인 관심과 생활습관 개선, 남성난임환자를 위한 보조제 복용 등의 노력을 통하여 정액소견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러한 노

희소정자증·운동성 저하증·기형정자증 - 적극적 관심, 보조제 복용
중증 희소정자증·무정자증 - 인공수정 시술, 시험관아기 시술 고려

력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거나, 중증 희소정자증 또는 무정자증 등의 결과를 보인다면 인공수정 시술이나 시험관아기 시술을 고려해야 한다.

◇희소정자증=희소정자증 남성의 경우 배우자의 나팔관 조영술을 시행했을 때, 나팔관 상태가 괜찮다고 여겨진다면 인공수정은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인공수정은 배우자의 배란기에 맞춰서 채취된 정액을 특수 배양액으로 처리하고 운동성 좋은 정자만을 선별해 농축된 상태로 자궁 내막안으로 넣어주는 시술이다. 부부관계 후 사정된 정자는 여성의 자궁 입구에서부터 난관의 팽대부까지 약 15~17cm의 거리를 헤엄쳐 가야 하는데, 자신이 몸길이 보다 3000배 먼 거리를 가야 되는 먼 여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공수정 과정은 출발선을 더 당겨줌으로써 더 좋은 정자가 더 많이 난자를 만날 수 있도록 확률을 높여준다고 할 수 있다.

◇중증 희소정자증=중증 희소정자증은 정자의 수가 1ml당 5백만 미만의 경우를 말하며, 이 때는 인공수정보다는 시험관아기 시술을 권유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증 희소정자증 환자에서 인공수정의 경우 만족할만한 임신율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소정자증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극희소정자증이나 잠복정자증은 무정자증의 바로 전단계로 1ml당 10만 미만의 정자수를 보이거나, 채취된 정액 안에 정자가 몇 개 밖에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환자에서는 시험관아기 시술 과정 중 수정과정에서 '난자 세포질내 정자주입(ICSI)' 시술이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무정자증=마지막으로는 남성 난임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무정자증을 살펴보자. 난임부부들이 처음 병원에 방문 후 검사를 진행하면서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을 듣게 되어 무척이나 당황스러워함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무정자증의 결과가 나온 경우, 먼저 전화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마음을 추스르고 난 후 다음 진료에 임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잠복정자증과 같이 일시적 무정자증 후 다시금 정자가 보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충분한 검역기간을 가진 후 반드시 재검을 통해 무정자증 진단을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진찰을 주의 깊게 하여 고환의 크기와 정계정맥류 유무를 확인하고, 혈액검사를 통하여 무정자증의 원인과 타입을 살펴보아야 한다.

무정자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염색체 이상 및 Y 염색체 미세결실 검사와 호르몬 검사를 시행하며, 그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치료방향에 대해 환자와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폐쇄성 무정자증은 비뇨기과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치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 정액검사를 확인하여 그에 맞는 난임 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비뇨기과적으로 치료 확률이 희박하거나 배우자의 난소 기능 저하 등 다른 원인이 동반된 경우에는 고환 내 정자추출술을 통해 정자를 확보후, 시험관아기 시술을 진행해야 된다.

이와 달리 비폐쇄성 무정자증이 의심된다면 바로 고환 내 정자추출술을 시행하거나 미세다중수술을 권유하기도 하는데, 비폐쇄성 무정자증의 정자추출율은 20~30% 정도로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술적인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정자가 회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정자 기증의 방법을 하나의 옵션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고관절 수술법 우수성 세계 의료진에 전수 빛고을전남대병원 윤택림 교수 '라이브 서저리' 시행

빛고을전남대병원 정형외과 윤택림 교수는 최근 외국의료진에게 고관절 수술법을 전수하는 라이브 서저리(Live Surgery)를 시행했다. 고관절 분야 세계적 명인의 윤택림 교수는 국제적 특허를 받은 두부위 최소 침습법·고관절 관절경 수술법 등을 지난 2007년부터 매년 2~3차례씩 외국 의료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시연이 34회째이다. 빛고을전남대병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 시연은 말레이시아·우즈베키스탄 등 7개국 의사 50명이 참석했다. <전남대병원 제공>

전남대병원, 의료질 평가 전부문 1등급

환자안전·공공성·교육수련·연구개발 등 6개 영역

전남대병원(병원장 안영근·사진)이 최근 보건복지부의 2021년 의료질 평가에서 전부문 1등급을 받았다. 전남대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20년 1년간 진료실적이 있는 전국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의료질 평가에서 진료·연구·교육 분야의 총 6개 영역에서 모두 1등급을 획득했다. 의료질평가는 보건복지부의 주관으로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번 평가는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수련, 연구개발 6개 영역에 53개 평가지표로 시행됐으며, 전남대병원은 6개 영역에서 모두 고득점을



기록했다. 이로써 전남대병원은 국립대병원 본연의 업무인 교육, 연구, 진료 분야에서 전국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급종합병원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 안영근 병원장은 "이번 평가결과는 의료진을 포함한 전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이다"면서 "앞으로도 최우수등급 유지를 위해 외래경증질환 비율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부부 난임의 원인 중 남성 요인으로 인한 비율이 30~40%에 달한다. 시엘병원 최민엽 원장이 난임을 우려하는 부부와 상담하고 있다.

광주 치과의료 우수성, 아시아에 알리다

조선대치과병원, 온라인 국제학술대회...5개국 500명 의사 참여

조선대치과병원(병원장 손미경)이 개원 43주년을 기념해 2021 CUDH 국제학술대회(International Conference in Conjunction with UGM)를 온라인 대회로 개최했다.

최근 이틀 간 진행된 학술대회는 조선대치과병원의 글로벌 해외 교육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광주시의 의료관광 홍보와 치과산업의 해외홍보 채널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협력과 의료관광 등 대면 교

류가 거의 중단된 상황에서 '치의학의 혁신과 공동 연구'(Innovation and Collaboration in Dentistry)라는 주제로 진행된 학술대회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등 5개국에서 500명 이상의 치과의사들이 참여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미세 현미경 신경치료와 같은 치과 혁신 기술을 소개함으로써 조선대 치과병원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알리고 글로벌 치과교육의 선도 의료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또한 '메디컬 광주' 의료관광을 소개하고 광주 치과 클러스터 산업체인 덴바이오, 덴탈워크숍기흥, 힐링스, 휴덴스 바이오, KJ메디텍, 쿠보텍, 티비엠 등 총 7개 기업의 제품을 적극 홍보하는 등 교육 플랫폼을 통한 광주시 치과산업 해외마케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손미경 조선대치과병원장은 "비대면 시대에 대응하는 온라인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교육 플랫폼을 통해 해외 치과의사 네트워크 구축과 광주시의 의료교육관광 브랜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지역선도의료기관으로서 치과병원의 해외 교류가 우리 지역 치과산업의 해외 홍보와 마케팅의 채널이 되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타자들을 향한 따스한 말건넬의 아득한 순간"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장막'을 자신만의 언어로 승화

진혜진 시인 첫 시집

포도에서 만남시다

추천사

"진혜진의 첫 시집은 '사랑'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꿈으로 각인해가는 불가항력의 과정을 담은 격정적 고백록이다. 그 세계는 때때로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인은 그 장막을 뚫고 자신만의 시적 진실을 하염없이 노래해간다."

- 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

진혜진 시인 프로필 | 2016년 경남신문,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산맥 등단 | 시집 「포도에서 만남시다」 |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수혜 | 제11회 시산맥작품상 수상 | 도서출판 상상인 대표